

# 기암괴석이 즐비한 섬마을서 울려 퍼지는 숨비소리



경주도 장지마을 전경.



장지마을에서 제주해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출항해녀 사진 왼쪽부터 이영자·김복순·조정림 씨.



경주도, 여수에서 두번째 큰 섬 장지마을엔 제주출신 해녀 3명 옆동네 안도마을 해녀 1명 남아

해녀배 이용 전복·해삼·소라 수확 "고령화로 마을 해녀 사라질 위기... 앞바다 해산물 줄어 생활 어려워"

기암괴석이 섬 주변에 즐비하고 신선들이 노니는 곳이라 불리는 경주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돌산도 다음으로 큰 섬인 경주도에도 제주출신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취재팀은 경주도에서 제주출신 해녀들이 수십년째 물질을 이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만나기 위해 여수시 돌산도 신기항을 찾았다. 신기항에서 배편을 이용해 경주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0여분이다.

취재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신기항에서 첫 배에 탑승해 경주도 여천항으로 향했고, 항에 도착한 뒤에는 곧바로 차량을 이용해 제주출신 해녀들이 물질을 이어오고 있다는 장지마을로 향했다.

장지마을에 도착하자 경주도 남단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눈 앞에 펼쳐졌고 마을 동쪽으로는 경주도와 안도를 연결한 안도대교가 눈에 띄었다. 섬마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느낄새도 없이 취재팀은 장지마을회장의 도

움을 받아 제주출신 해녀들과 마을 내 어촌계 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영자(71·조천읍 북촌)·김복순(70·한림읍 협재)·조정림(68·우도면)씨 등 3명이 이곳 장지마을에서 물질을 이어오고 있는 제주출신 해녀들이다. 이중 김복순 해녀가 남편과 함께 장지마을에서 해녀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영자 해녀와 조정림 해녀 등 지방 해녀들이 팀을 이뤄 해녀배를 이용해 물질에 나서고 있다. 주 수입은 전복, 해삼, 소라, 성게, 미역, 천초 등으로 물질작업은 한달 보통 15일 정도 이뤄진다. 하루 수입은 평균 십여만 원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경주도 앞바다의 해산물이 많이 줄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곳 해녀들에 따르면 40~50년전 장지마을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 출신 해녀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정착한 해녀들도 수십여명이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매년 해녀 수가 줄었으며, 최근에는 제주출신 해녀가 세상을 달리하는 등 장지마을 해녀는 점점

사라질 위기다.

이들은 "수십년 전만 하더라도 장지마을 인근 해역에는 물건(해산물)이 많아 해녀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또 당시 해녀들은 많은 돈을 벌며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 왔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바다가 오염된 탓인지 수확량이 감소돼 자연스레 수입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건이 줄고 수입이 감소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많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제주도에서 잡수복(고무옷)을 맞추고 있는데 한번 제작할 때마다 30만~40여만원이 소요된다. 잡수복에 대한 지원이 일정부분만이라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취재팀은 이날 장지마을 해녀들의 인터뷰를 마치고 장지마을과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인 안도마을도 방문했다. 장지마을 해녀들로부터 안도마을에도 제주출신 해녀들이 힘들게 물질을 이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마을에 도착한 뒤 안도마을 회장을 만나 제주출신 해녀들의 이야기를 들

었다.

안도마을 회장에 따르면 장지마을과 더불어 안도마을에도 수년전만 하더라도 제주출신 해녀가 3~4명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나이가 들면서 모두 은퇴했고 현재는 1명만 현역으로 지방 해녀들과 바다에 나가고 있다. 이날 안도의 제주출신 해녀는 건강상의 이유로 취재팀의 인터뷰에는 응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안도마을 내에 제주출신 해녀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주도는 여수에서 돌산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주변 섬에 비해 넓은 면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람이 들어와 산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별취재팀-팀장 고대로 행정사회부장, 이태윤기자  
▶자문위원-양희범 전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장, 조성환 연안생태기술연구소장, 김준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조성익·오하준 수중촬영전문가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휴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